

해운정사는 9월 1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서 '3자녀 가정 출산양육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진제 스님 "온 국민, 3자녀 운동해야"

해운정사,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 장학금 수여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해운정사는 9월 1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서 '3자녀 가정 출산양육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3자녀 가정 100가구에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저하 속에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운정사와 (사)대한불교조계종 진제선세계화가 공동 주최했다.

장학금은 추석에 50만원, 설날에 50만원으로 2번에 나눠 총 100만원씩 지급되며 10년간 한 가정에 1000만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해운정사는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대상을 모집했다.

해운정사 측은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를 등한시해 인간의 참된 본성서 멀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정사는 출산양육장학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각 가정에 수행을 독려하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제 스님은 각 가정에 인성교육 오계를 내리며 바른 심성을 강조했다.

수여식서 장학금을 받은 자녀들은 가르침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진제 스님은 "출산율 문제는 한 가족이나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욱 꽃 피우기 위해선 3자녀 갖기 운동을 온 국민이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류선진국이 될 것이며, 천추만대 조상의 미풍양속을 전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산아제한정책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로 출산율이 떨어진 후 2013년 1.25명으로 세계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해운정사 측은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동시에 노령화가 발생하므로, 젊은 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무거워진다"며 "그뿐 아니라 지금의 출산율로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한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성미 기자

진해 호국사, 법당 불사로 '힘찬 다짐'

8월 30일 해군사관학교 법당 신축불사 기공식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법당 '호국사'의 불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8월 30일 '호국사' 기공식을 해군사관학교 내 호국사 부지 앞에서 봉행하고, 안전한 공사를 발원했다.

호국사는 1972년 창건돼 44년간 사관생도들이 불심을 다지는 도량으로써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노후한 시설로 인해 증축 불사가 꾸준히 요청돼왔다. 이번 기공식을 맞아 호국사는 개선된 시설로써 더욱 활발한 포교를 펼친다는 다짐이다.

신축될 호국사는 고건축 양식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8㎡ 규모이다. 1층에는 법사관실과 친교공간이 자리 잡으며, 2층에는 약 3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35억 원의 대규모 불사이며 2017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이후 사관생들의 쉼터 뿐 아니라 포교 및 교육도량으로 회향된다. 이를 위해 기존 법당은 6월 철거됐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축사, 발원문,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세워지면 극락정토가 세워진다는 말이 있다"며 "호국사 법당으로 인해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건아들이 건강과 힘, 용기, 지혜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44년 낙후시설 개선 요청 '빗발'
35억 · 지상 2층 대규모 불사
기존 법당, 지난 6월 철거 진행
"해군 위한 거룩한 법당 발원"

해군사관학교장 이범림 중장은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호국사 불사의 첫 삽을 뜨게 돼 기쁘다"며 "새롭게 신축되는 호국사는 앞으로 사관생도들의 신앙심 고취 뿐 아니라 정신력 강화를 위한 도량이 될 것이다. 이곳에 참여해 주신 많은 내빈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진해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가해 격려하고 군포교 현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진해사암연합회장 해초 스님은 "그동안 법당이 낡고 비도 새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큰 발원이 이뤄져 크게 축하한다"며 "해군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니듯 불교에는 생사고해란 바다가 있다. 이 생사고해 바다를 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법당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호국사는 매년 임관 법회에서 가장 많은 불자 생도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군포교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해군사관학교 제70기 졸업 임관법회에는 졸업생 144명 가운데 불교 58명, 기독교 48, 천주교 36명 순으로 불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공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군종교구 총무국장 지선 스님, 범어사 교무국장 범수 스님, 진해사암연합회 회장 해초 스님 및 진해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비롯해 호국사 초대법사 원명 스님(영주 관음사), 이범림 해군사관학교장, 최명한 호국사 신도회장, 해군사관학교 불자 장병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는 8월 30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법당 호국사 기공식을 해군사관학교 내 호국사 부지 앞에서 봉행했다.

108배 90일 수행 "행복을 기도해요"

홍법사 어린이회, 재가 하안거 회향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동림 어린이회가 재가 하안거 수행을 회향했다. 5월 30일~8월 27일 총 90일 동안 진행된 하안거엔 초등생 50여명이 참여했다.

90일 동안 108배 수행을 빠지지 않고 해낸 아이들이 총 70%에 이를 정도이며, 홍법사는 향후 108배 천일결사도 가능하단 자신감을 얻어 현재 기획 중이다.

회향식은 8월 27일~28일 동안 홍법사 경내에서 진행됐으며 108배 및 방생, 수행록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강지민(교대부속초 · 2년) 학생은 "90일 수행 회향 이틀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순간에는 많이 놀라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며 "여름에 너무 더워 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세상에 가난한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전해 감동을 남겼다.

김미옥(56 · 금정구) 동림 자모회원은 "아이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한 번씩 꾀를 부리며 안 하려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야단치지 않았고 아이를 대신해 혼자 108배를 3번씩 했다"며 "그 후 아이가 자발적으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다. 지혜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청년불교 활성화… 해답은 '가정법회'

수도사 청년회, 1차 법회 봉행
양갱 만들기 등 가족프로그램

부산 수도사(주지 일철) 청년회의 첫 법회가 봉행됐다.

수도사 청년회는 8월 27일 수도사 경내 법당서 제1차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7월 9일 창립된 수도사 청년회는 매월 4째주 토요일 오후 1시 정기법회를 열고, 불교문화 수업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회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가정법회 및 문화수업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4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가족을 두고 주말에 절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구성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1부 법회에 이어 2부 불교문화수업으로 전통양갱 만들기가 진행됐다. 회원들은 전통양갱을 창립에 도움을 준 수진스님(부산조계종연합회 회장)과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수월 스님, 추현철 BTN불교TV 중창단장, 김태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및 회원들에게 전달해 감사인사를 전할 것이라 밝혔다.


8월 27일 수도사 법당서 첫 법회를 봉행한 청년회 회원들이 양갱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민경(36 · 부산 구포동) 씨는 "자녀 3명을 데리고 참석했다. 법회에 함께할 뿐 아니라, 특히 큰 아이는 요리를 좋아해 양갱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서재원 수도사 청년회장은 "앞으로 사찰음식, 선화, 붓글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할 것"이라며 "불교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수행 프로그램도 주중에 마련, 수행정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는 청년회로 발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나은사 일주문 낙성

지역민 위한 포교 도량으로 회향

양산 나은사(주지 남월)가 일주문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15년 불사를 마무리했다.

나은사는 8월 27일 일주문 낙성 법회를 경내법당서 개최했다. 낙성법회에는 주지 남월 스님, 천성사 주지 대안 스님, 만복사 주지 대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법회는 제막식과 개식 및 발원문 낭독, 설법 그리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남월 스님은 "일주문 낙성식에 동참하신 우리 법우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엄한 경책 모두 감사드린다"며 "불사의 회향은 곧 포교이다.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기도정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나은사는 8월 27일 일주문 낙성 법회를 경내법당에서 개최했다.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 · 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